SK이터닉스 (475150)

하이닉스 가는 길에 이터닉스도

유틸리티/건설
Analyst 문경원, CFA
kyeongwon.moon@meritz.co.kr
RA 이동석
dongseok.lee@meritz.co.kr

Meritz Research 2026. 6. 30

2035년까지 18GW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. 커다란 전방이 열렸다

정부는 29일 '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' 발표. 이 안에는 2029년까지 8.4GW, 2035년까지 추가 10GW의 AI데이터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. 이 중 SK 그룹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총 15GW의 AI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며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. 이 밖에 서남권 메모리 팹 4기를 구축, 충청권 HBM과 첨단 패키징 중심 거점 육성,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 가속화로 인해 반도체 향 전력 수요 전망 역시 수GW 상향 조정될 전망

전력 공급은 조화롭게, 하지만 방점은 재생에너지에

정부는 재생에너지, SMR, 화력의 '조화로운 전원믹스'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전망.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에 주목. '2030년까지 100GW'의 설치 목표를 또 한번 강조했으며(참고로 2026년 4월 누적 설치량은 약 39GW), BESS 등 유연성 자원 투자도 늘릴 계획. 이번 계획 이후 7월 말 예상 'K-GX'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계획이 또 한번 강조, 구체화될 전망. 현 전기사업법 상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에만 허용되어 있어 AI데이터센터 전력원으로서 규제적 이점 존재. 한전을 우회해 직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원

SK 그룹의 재생에너지 사업 핵심 축으로서 동사의 역할에 주목

동사의 주력 사업은 국내 태양광, 풍력 개발 사업. 또한 최근 ESS 중앙계약시장에 참여하는 등 다방면에서 국내 전력 수요 상승에 따른 수혜가 가능. 특히 소규모 태양광 단지를 매입, 40~100MW 단위로 구조화하여 대기업에 전력을 공급(PPA)하는 '솔라닉스' 사업에 주목. 만일 PPA 대상이 제조업 공장에서 AI데이터센터로 확대된다면 전방 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

언론에 따르면 SK-KKR은 재생에너지 JV를 설립할 계획(6월 9일 한국경제). 동사를 포함해 SK E&S, SK에코플랜트의 재생에너지 사업부분을 KKR이 인수. 이후 JV를 통해 세 개의 자산이 통합 운영될 전망.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으나, 그간 발전소 초기 개발에서 그쳤던 동사의 역할이 다방면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. KKR의 자금 지원 가능성 역시 CAPA 확장 측면에서 긍정적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